

# 단발령 이후 일본의 두발형태가 한국 남성 頭髮形態에 끼친 영향

장영선\*  
jysschool@dreamwiz.com

박옥련\*\*  
ylpark@ks.ac.kr

## < 目次 >

- |                  |                                  |
|------------------|----------------------------------|
| 1. 서론            | 3.3 복식제도의 변화                     |
| 2. 이론적 배경        | 4. 일본의 두발형태가 한국남성<br>두발형태에 끼친 영향 |
| 2.1 한국의 사회적 배경   | 4.1 도입기                          |
| 2.2 일본의 사회적 배경   | 4.2 과도기                          |
| 3. 남성 두발형태의 변화요인 | 4.3 발전기                          |
| 3.1 단발령 선포       | 5. 결론                            |
| 3.2 신분제도의 붕괴     |                                  |

主 題 語: 단발령(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남성두발형태(men's hair style), 땡기머리(daenggi hair), 상투머리(topknot hair), 하이칼라(High collar), 고부야기(sport hair), 가쿠가리(Crew hair)

## 1. 서론

한국 남성의 두발형태는 단발령(斷髮令)이후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일본의 개화에 따른 두발형태에 영향을 받아 점차 서구적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서양문물의 유입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으며, 동시에 두발형태와 복식문화에도 새로운 문명과 제도를 도입하여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당시 조선은 을미사변 이후 내정개혁을 주도하던 김홍집(金弘集, 1842~1896)내각은 조선 제국 504년(서기1895년, 고종32년) 11월 17일 건양원년 1월 1일로 하고 음력을 양력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전국에 단발령을 내렸다. 단발령에 대한 극렬한 반대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여러

\* 동부산대학 뷰티아트학과 겸임교수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교신저자

가지 행태로 나타났으나 개화기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점 단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단발령이후 일본 남성의 두발형태가 한국 남성 두발형태 변화에 끼친 요인을, 단발령 반포와 신분제도붕괴, 복식의 변화로 구분하고, 변화요인에 따른 일본의 두발형태가 한국 남성의 두발형태에 끼친 영향을 1895년 부터 1945년까지를 도입기, 과도기, 발전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도입기는 단발령이 선포된 1895년부터 1900년대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전통적인 땡은 머리, 상투머리에서 일본남성의 두발형태인 고부가리(五分刈り, ごぶがり)<sup>1)</sup>, 가쿠가리(角刈り, がり刈り)<sup>2)</sup>와 같은 짧은 두발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과도기인 1910년부터 1920년대는 전통적인 두발형태는 감소하는 반면 새로운 두발형태가 병행된 시기로서, 현대적인 의미의 미용 산업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즉 두발형태는 하이칼라스타일<sup>3)</sup>을 하면서 조선의 전통적인 갓을 쓰고, 한복과 구두를 신는 등의 다소 복합적인 패션이 선을 보였다.

발전기는 1921년부터 1945년 해방을 기점으로 일본 남성 두발형태인 고부가리, 가쿠가리와 까까머리, 장발 머리에 웨이브머리 등이 인기를 얻게 되었고, 머리카락을 윤기 나게 하는 포마드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열강의 문화와 선교사들의 두발형태들이 유입되면서 두발형태의 용어 또한 조금씩 변화되어 스포츠머리, 상고머리, 모판머리, 룡구 스타일, 맨즈 스타일 등 의 용어로 불리지면서 현재까지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이로 볼 때 한국 남성의 두발형태는 단발령 이후 일본남성의 두발형태의 영향을 받아 발전기를 계기로 현대적인 두발형태로 대중화되고 정착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단발령 이후 일본의 두발형태가 한국 남성의 두발형태에 끼친 영향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송현주(1987)의 「우리나라 男性修髮의 變遷에 관한 研究」와 임운정(2011)의 「19세기말 조선의 상투와 단발령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고찰」, 신은수(2005)의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관한 연구」, 김민정(2003)의 「개화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과 재현에 관한 연구」 등 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남성의 두발형태에 단발령이 미친 영향이 단편적인 접근에 불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남성의 두발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에서 단발령을 계기로 일본남성의 두발형태가 한국남성의 두발형태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연구

1) 머리를 5부 길이로 깎음. 또는 그 머리

2) 둘레는 짧게, 머리 위는 평평하게 깎아, 전체적으로 모난 느낌을 주는 남자의 머리 모양. 상고머리.

3) 하이칼라의 어원은 High class의 의미인 “ハイクラス”도 있지만, High collar로 당시 일본 상류층이 입었던 서양의상이 목깃이 높은 형이었기 때문에 이를 “ハイラカー”라 한데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하이칼라는 특정 헤어스타일의 의미가 아니라 신문물(新文物)의 대표적인 의미로 쓰임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조선시대후기와 일제강점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선행논문과 전문서적,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였고, 실증적 연구는 당시 사진과 신문, 19세기 말의 회화자료 등을 검토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단발령이 선포된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시기로 설정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의 사회적 배경

18세기 후반 북학론 학자들의 해외통상론(海外通商論)은 조선왕조의 쇄국주의를 극복하고 문호개방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진적 주장이었다. 그러나 19세기의 세도정권 시기로 들어서면서 보수정치세력은 천주교 금압(禁壓)을 앞세운 쇄국주의를 강행하여 자율적 문호개방의 기회를 잃고, 결국 일본의 강요에 의해 문호개방을 하게 되었다.<sup>4)</sup>

마침내 1876년 한·일 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서양과의 수교를 배척해 왔던 기존의 쇄국정책을 뒤엎고, 개항과 더불어 일본과 서구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근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894년 갑오개혁은 조선을 근대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서구사회의 두발형태와 복식제도를 수용하였다.<sup>5)</sup> 특히 홍영식(洪英植, 1855~1884), 서광범(徐光範, 1859~?) 등의 외국사절단은 선진문물을 접하고 “나는 눈부신 광명 속에 갔다 온 것 같다.”<sup>6)</sup> 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서양문물에 감탄하였고, 이런 진보된 문물을 조선에 들여오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조치는 단발령 이외에 새로운 연호사용, 복식제도개편 등에 대한 개혁조치와 개혁파에 반대한 보수파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단발령은 조선 사람에게서는 성별, 결혼유무, 신분과 계급 그리고 유교적 수양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인 두발형태 변화를 요구하는 행위였다.<sup>7)</sup> 당시 단발령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한 보수파들의 입장은 유교적 예규와 신분구별과 상투리는 전통적인 두발형태를 중화주의 상징으로 이해하였다.

4) 김만길(2012)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비, p.2

5) 김이든(2007)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6) 유의경(1975) 「한국 남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627-628

7) 구자일(2001) 「韓末 醜泉 義兵戰爭」 『안동사학』 6집, pp.58-59

따라서 단발령은 중국 중심주의의 이념과의 단절 혹은, 파괴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은 단발령에 대해 극렬히 저항한 보수파의 대표적 인물인 최익현의 입장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가사 斷髮을 하면 나라가 보존되고 단발을 하지 않으면 멸망된다 할지라도, 예로부터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차라리 中華가 되다가 멸망할지언정 夷狄이 되면서까지 보존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더구나 천하 만고에 본래 이러한 이치가 없겠습니까? 또한 어찌 夷狄이 되기를 달게 여겨 先聖과 先王에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sup>8)</sup>

최익현은 일제의 침입에 강력히 대항한 대표적인 유학자이며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식인이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중화사상(中華思想)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적 이념으로서, 그는 우리의 전통적 두발형태인 상투가 기존 “오랑캐 민족의 나라인 청나라” 이전의 중국문화를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상징으로 이해하였다. 그의 중화사상은 단발령 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사상에 기초한 신분타파 혹은 변복의 문제도 중화사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해하여 반대하였다.<sup>10)</sup> 그럼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은 점차로 상투를 자르는 행위가 전통적 인식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스스로 상투를 자르는 단발을 시행하였다. 당시 일본남성들의 두발형태는 고부가리, 가쿠가리를 주로 하였고, 조선의 젊은 층과 지식인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부가리와 가쿠가리를 하게 되었다. 이후 두발형태 뿐만 아니라 양복, 모자와 구두 등의 신문물은 외국인이나 유학생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신문, 잡지 및 소설 속에서 등장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일본인이 운영한 “개화당제조소”라는 이발소가 단발령과 함께 생겨나, 수많은 일본사람과 개화파의 조선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나아가 일본이발소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이발소는 1901년 유양호가 개업한 동흥 이발소가 있었고 “상투를 자르고 백호를 친 다”는 광고를 써 붙였다.<sup>11)</sup> 광화문 근처에는 태성 이발소를 안중호가 개설하였으며 그 당시 서울 장안에는 통틀어 이발소가 4군데였다.<sup>12)</sup>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이발사 시험제도는 1923년 야마모토(山本, やまもと)라는 일본인이 주축이

8) 신용하(1999) 『일제강점기의 사회와 사상』 신원문화사, p.91

9) 개국 후 개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지키며 그것을 민족 주체 의식으로 여긴 사람들로, 대개 유교 사상에 젖은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등 유생이었다.

10) 신용하(1999) 앞의 책, pp.33-36

11) 김국도(1999) 『이용기술』 강경문화사, p.296

12) 김수원(2000) 『이용기술』 영인문화사, p.215

되어 최초의 강습회를 시작하여 그 해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이발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서울특별시의 이발사 시험 실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부터였다.<sup>13)</sup> 이로 볼 때 한국 남성의 두발형태가 현대적 의미의 두발형태로 변화되는 계기는 단발령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 2.2 일본의 사회적 배경

일본은 1853년 미국이 아메리카 서해안에서 중국으로 연결하는 태평양 정기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페리(M.C.Perry)호로 압력을 가하자 강제 개항을 하면서, 최혜국조관(最惠國條款)<sup>14)</sup>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이후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과도 체결하였다. 구미 제국의 강경한 압력에 못 이겨 20년간 쇠국을 깨고 개국무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재정궁핍과 함께 백성의 봉기와 폭동이 계속되고, 하급무사를 중심으로 손노조이(尊王攘夷)와 도막(倒幕)운동<sup>15)</sup>의 격화로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1867년 에도시대가 막을 내렸다. 1868년에는 구미자본주의의 제도를 모방한 천황정권인 메이지 유신이 수립되어서, 구미각국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서양예술과 과학을 모방하여 구국강병한 근대국가를 건설하였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왕정복구로, 조선에게도 천황의 우위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조선은 전통적 외교관계를 무시하는 일본 측 요구를 외교문서의 격식상의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정부 내에서는 정한론(征韓論)<sup>16)</sup>이 제기되었다. 정한론이 큰 호응을 얻으며 일본의 대외 팽창주의는 1874년 타이완을 침략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구열강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국제적으로 서구열강과 동등한 지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1875년 조선 영해에서 무력시위를 강행하여 강화도조약으로 이어졌다.<sup>17)</sup>

1976년의 강화도 조약이후 조선에서는 일본과 함께 서구열강들의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였으며, 그중 가장 획기적인 문화가 두발형태와 복식문화의 변화였다.

조선의 전통적인 남성 두발형태인 상투머리는 일본역시 에도시대부터 존마게(丁髷, ちよんまげ)<sup>18)</sup>를 해오고 있었다. 1867년(明治4년)에 내려진 단발령은 상투를 해 오던 일본인들에게

13) 박상근(1999) 『이 · 미용연감』 한국미용예술문화원, p.19

14)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15) 하급무사를 중심으로 정권을 천황에게 되돌리라는 운동으로 이후 막부는 쓰러지고 천황이 정치표면에 등장하는 메이지[明治]정부가 성립되었다.

16) 18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정계에서 일어났던 조선 정복에 관한 주장

17) 林允貞(2011) 「19세기말 조선의 상투와 단발령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25-26

18) 존마게(丁髷)는 에도 시대의 남자 머리모양의 한 가지이다. 이마 위의 머리를 밀고, 후두부에서 머리를

있어서 조선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문화적, 관습적인 충격으로 받아드려졌다. 상투의 관습을 버리고 서양식 두발형태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발 업계는 일대 큰 변혁을 일으켰다. 1874년 일본은 요코하마(よこはま)를 유럽 각 나라에게 개방하여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산존정길(三尊鄭吉)이 정박해 있는 포르투갈의 선원에게서 유럽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발을 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이 일본 최초의 현대식 이발소였다. 이때 일본에서는 이발소를 표시하는 간판으로 삼색의 네온사인<sup>19)</sup>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단발령을 더욱 강화되었다. 소규모 영세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기술과 위생 등에 있어 불건전한 업소들이 난립되었다. 1901년(明治34년)에 경찰청령을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이발영업취선규칙(理髮營業取線規則中改正)을 제정하였다.<sup>20)</sup> 일본이 현대적인 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1945년(昭和20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경제부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에 힘입어 이용(理容)의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었다. 이후 이발소가 증가되었으며 서비스의 향상과 기술 및 시설의 확충을 통해 이발소는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1947년(昭和22년)에 일본의 이용사법(법률 제234호)이 제정되었다. 이발사들과 이발소는 경찰법에 의해 취급받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의 측면이 강조되어 후생성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sup>21)</sup>

### 3. 남성 두발형태의 변화요인

#### 3.1 단발령선포

1881년 당시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으로 일본을 건너간 서광범(徐光範, 1859~?)이 체류하던 중 상투를 자른 것이 조선 최초의 단발기록이다.<sup>22)</sup> 을미사변 이후 내정개혁을 주도한 김홍집 내각은 1895년(고종32년) 11월 15일 내부고시를 통해 단발령을 공포하고, 조칙에서 고종이

---

모아 틀어 올렸다. 주로 사무라이들이 많이 했다.

19) 1540년 파리에 살던 이발사이자 외과의였던 메야나킬 삼색원통을 고안했다. 빨강은 동맥, 파랑은 정맥, 흰색은 붕대를 의미한다.

20) 신은수(2005)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 두피 모발 미용학회지』 제1권 제1호, p.170

21) 앞의 책, 김수원(2000) 『이용기술』 영인문화사, p.217

22) 신은수(2005)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두피모발 미용학회지』 제1권 제1호, p.171

“詔曰: “朕이 髮을 斷하야 臣民에게 先하노니 爾有衆은 朕의 意를 克體하야 萬國으로 竝立하노니 大業을 成케 하라.”<sup>23)</sup>

“짐이 머리카락을 잘라 신민에게 모범을 보이니 너희들은 짐의 뜻을 받들어 만국과 함께 병립하는 대업을 이루게 하라<sup>24)</sup> 고 하였다. 단발을 하는 것은 위생적이고 짐무상 편한 두발형태를 성상폐하께옵서 솔선수범했으니 국민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단발령을 내무대신 유길준 명의로 공포<sup>25)</sup>하였다 1906년에는 당시의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이 각 도에 군수삭발령(郡守削髮令)<sup>26)</sup>을 내려 군수, 주사 등 관리들에게 삭발하도록 지시하였다. 급조한 벼슬아치인 체두관(剃頭官)은 지방의 저작거리는 물론이요, 가가호호 방문하여 머리카락을 잘랐고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바깥출입을 삼가 했다. 이는 유교윤리관이 뿌리 내린 조선에서의 단발령은 단순히 상투를 잘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 천 년의 나라 기틀과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본의 공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더욱이 명성황후시해로 민심이 자극된 시기였기에 반발은 매우 거셌다. 대표적인 반감사례를 살펴보면, 유림의 거두인 면암 최익현(崔益鉉, 1833.12.5~1907.1.11.)은 “차두가단 차발불가단(此頭可斷 此髮不可斷)” 즉, 손발은 자를지언정 두발을 자를 수는 없다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sup>27)</sup> 또 이충무공 후예인 이규백(李圭白)의 부인과 함양 선비 정순철의 부인은 각각 삼강오륜은 머리카락이 끊어지고 내 영은 윤강을 따라 끊어지도다. 머리 깎는 스님은 남편도 이들도 없다는 유서를 쓰고 자결하였다.<sup>28)</sup>

일부에서는 단발령을 강행 한 것은 조선내각이 아니라 일본이라 말하고 있다. 명분 또한 “위생과 편리함을 위해서”라는 것은 구호일 뿐, 실제로는 본격화 된 일본의 조선지배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즉 조선의 조정과 백성의 갈등을 조장하여 소요사태를 유발 한 뒤 자국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일본군을 중과하여 조선에 대해 정치, 경제, 외교면적으로 간섭을 강화했다. 또한 일본 상품과 조선 미곡의 교환체제를 확대하여 자국 상인의 조선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sup>29)</sup>

23) 高宗 33卷, 32年(1895 乙未 / 淸光서(光緒) 21年) 11月 15日(辛亥)

24) 이영미(2004) 「한국 남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25) 이상현(2002) 「상투와 단발령 그리고 하이카라머리」 『실천민속학연구』, p.22

26) 한말에 군수 등 지방 관리자들에게 삭발을 강요한 명령으로 서울의 관리들은 령을 따랐으나 지방에서는 10년이 지난 뒤까지 백성은 물론 당시 제주도 군수이던 정교(鄭喬) 등 많은 관리들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 이에 1906년(광무 10) 당시의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은 각 도에 명령을 내려 군수·주사(主事) 등 관리들에게 삭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 곡산(谷山) 군수로 전임한 정교(후의 학부 참서관·독립협회 사법위원)는 끝내 머리를 깎지 않았다.

27) 배행숙(2007) 「남성 얼굴 형태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조사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28) 강만길(2012) 『고쳐 쓴 한국근대사』 수선사, p.224

그러나 서양식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던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이나 신채호(申采浩, 1880년~1936년) 등의 젊은 지식인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스스로 상투를 잘랐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쇠국에서 외부 세계로 발을 딛는 근대화 과정에서 상투를 잘라야했던 공동 운명이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무사를 상징하는 존마게를 자르고 양복을 입었으며, 중국에서도 청조를 배척하고 근대화하는 상징으로 청족의 상징인 변발을 잘랐다. 하지만 한국의 상투를 자른다는 것은 존마게나 변발과는 달리 침략이라는 잠재 변수가 있었고, 그래서 단발이 역사의 상처로 남게 된 것 이다<sup>30)</sup>. 오늘날 한국에서 상투를 튼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지난 100년간을 경과하면서 위생과 편리함보다 유교적 명분을 찾는 사람들이 이미 거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남성의 두발형태가 변화된 중요한 분수령이 100년 전의 일이다.<sup>31)</sup>

### 3.2 신분제도의 붕괴

조선은 양반중심의 신분사회로 양반, 중인, 양인, 천인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두발형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금제를 두어 신분과 계급에 따른 차별을 두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신분제도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세에 접어들어 농업기술의 발전과 생산력의 증대, 광작(廣作)의 증가, 부농 및 양인지주의 등장 등이 농민층을 분화시켜 신분제도의 붕괴를 촉진하였다.<sup>32)</sup> 1894년 갑오개혁은 조선을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혁시키려는 획기적 개혁운동으로 수 천년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전통적 신분제와 풍습을 법적적인 차원에서 구체화시키는 혁명적인 의미를 지닌 개혁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거쳐 반포된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sup>33)</sup>에는 신분이 동현상이 지배적이며 이는 신분을 표시해 주던 두발형태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처럼 신분제도의 붕괴는 수천 년 내려오던 왕실과 사대부 중심의 수직적인 문화에서 서민을 위한 수평적인 문화로 전이(轉移)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 것이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시기에는 왕족과 사대부, 서민, 천민의 계급차가 뚜렷하여 두발형태에서도 의례용과 일상

29) 앞의 책, p.230

30) 이규태(1999) 「남편상투대신 목숨 끊은 여인네」 조선일보 컬럼(1999.4.22)

31) 김민정(2003) 「개화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과 재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8-30

32) 김이든(2007)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33) 군국기무처의안은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4일간에 갑오경장 담당기구인 군국기무처의결에서 채택한 제도 개혁안 내지 정책건의안을 말한다. 총 수는 약210건에 달한다.

용을 구분하였던 것이 신분제도의 붕괴로 그 구분 역시 점차 적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 3.3 복식제도의 변화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복식제도는 갑신, 갑오, 을미년의 의제개혁과 대한 제국의 의제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갑신, 갑오, 을미년의 의제개혁을 통해서는 복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졌고, 대한제국의 의제개혁을 통해서는 관복에 양복이 도입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의제개혁을 통해 복식의 간소화되고, 양복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복식문화가 탄생하였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복식과 두발형태의 문화를 하이칼라라고 표현한다.

하이칼라의 어원은 High class의 의미인 “ハイクラス”도 있지만, High collar로 당시 일본 상류층이 입었던 서양의상이 목깃이 높은 형이었기 때문에 이를 “ハイラカ”라 한데서 유래 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여하튼 하이칼라는 신문물(新文物)의 대표적인 산물로 여겨지게 되었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겼던 조선의 신지식인들은 점차 자의적으로 상투를 자르게 되었다.<sup>34)</sup> <그림 4>는 일제강점기에 유행한 하이칼라로 대표 되는 모던보이와 모던 걸을 풍자한 신문자료들이다. “익숙지 않는 양복을 입고 다니니 불편하다는 남자와, 높은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걸으니 남자 보다 더 여자가 힘들다”는 대화의 풍자 글이다. 이처럼 하이칼라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남성상으로 받아들여져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순된 현상은 개항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그림 4> 하이칼라스타일  
출처: <http://blog.naver.com/pandova>

34) 김민정(2003) 「개항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과 재현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35) 김이든(2007)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 4. 일본의 두발형태가 한국 남성 두발형태에 끼친 영향

### 4.1 도입기

일본의 두발형태가 한국 남성의 두발형태에 끼친 두발형태의 변천을 1895년 부터 1945년까지를 도입기, 과도기, 발전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도입기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전통적인 뿔은 머리, 상투머리에서 고부거리와 기쿠거리 같은 짧은 두발형 태로 변화되는 과정이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서양문물의 유입과 함께 두발형태와 복식문화에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단발령에 의해 단발이 강행되었으나, 도시의 젊은이들과 서양식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던 이승만이나 신채호 등의 젊은 조선 지식인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스스로 상투를 잘랐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본의 두발형태를 따르지 않고 전통적인 두발형태인 뿔머리와 상투머리를 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도입기의 전통적인 두발형태와 단발령을 계기로 나타난 두발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1.1 전통적인 두발형태

단발령 이전의 전통적인 두발형태에는 뿔머리와 상투머리가 조선시대 남성의 대표적인 두발형태이다.

##### 4.1.1.1 뿔머리와 상투머리

조선시대 남성의 뿔머리는 미혼녀의 뿔머리와 같은 형태로 관례전의 대표적인 두발형태이며 뿔의 종류에 따라 신분을 구분되었다. 단발령이 반포되어 뿔머리를 자르고 단발을 강요당했을 때, 상투머리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저항을 하였다. 단발령이 반포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기에도 뿔머리는 전통을 고집하고 단발령에 저항하여 학교에서 자퇴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뿔머리의 두발형태는 대략 25cm전후이고 폭은 2~3cm가 보통이다. 조선말에 주로 사용되었던 뿔머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 쪽뿔머리, 큰 뿔머리, 앞 뿔머리, 도투락뿔머리, 말뚝뿔머리, 제비부리뿔머리 등이 있다. 도투락뿔머리는 큰 뿔머리와 유사하나 크기가 작고 끈을 달아 어린 아이들이 뒤통수에 매달아 주었다. 말뚝뿔머리는 도투락뿔머리에서 제비부리뿔머리로 넘어가는 중간 연령대

의 이동용으로 땡기 끝자락이 몽툰한 일자형이다. 제비부리땡기는 미혼용이며 남자는 흑색땡기를 사용하였고,<sup>36)</sup> 연령에 따라 그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그림 5>는 땡기머리모습이며 미혼녀의 땡은 머리와 같은 형태이다.



<그림 5> 미혼남의 땡은 머리

출처: 한국문화컨텐츠&중앙대학교 인문컨텐츠 연구센터 자료제공

다음으로 조선시대의 성인 남성의 대표적인 두발형태인 상투머리를 들 수 있다. 상투는 높은 지위를 뜻했고, 지배계급의 성인 남자와 무사의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상투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모발의 꼬임정도나 크기가 조금씩 변했지만 조선시대의 상투를 일반적인 남성의 두발형태로 인식하게 되었다. 상투는 혼례 여부보다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과의식의 의미가 더 많았기 때문에 상투를 틀고 쪽을 지는 순간부터 어른으로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간혹 혼례전이라도 관례의식을 통해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 상투를 틀기도 하였다. 상투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모발의 꼬임정도나 크기가 조금씩 변했지만 조선시대는 상투를 일반적인 남성의 두발형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볼 때 전통적인 여성의 다양한 두발형태에 비해 단순한 특징을 보이거나 화려한 동곳과 관모와 갓을 통해 다양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상투 꼭지의 정상에는 그 위에 금, 은, 구리 등으로 만든 동곳을 꽂아 장식하고, 이마 둘레에 망건(網巾)을 쓰고, 망건 앞 이마부부에는 풍잠(風簪)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신분과 계급 또는 상황에 따라 탕건(宕巾), 흑립(黑笠), 관(冠) 등으로 장식하였다. 상투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수리 부분에 백호를 치고 상투를 틀었다. 백호를 치는 이유는 머리길이가 길고 무거우면 상투가 쉽게 풀릴 수 있고, 미관상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투의 위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서민 남성들은 수식이 없는 상투만 엮었는데 이를 민 상투 또는 상투의 속어인 “고작”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 남성의 대표적인 두발형태인 땡기머리와 상투머리는 단발령에 굴복하지 않고 여러 가지방법으로 저항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개화와

36) 이민주(1998) 「상투와 단발령」 『단국사학회』 제31권, pp.271-294

서구 열강의 변화를 환영하는 개화파 인사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점점 일본남성의 두발형태를 하게 되었다.

#### 4.1.2 단발령 이후의 두발형태

단발령을 계기로 우리나라 남성의 두발형태는, 일본남성의 두발형태인 고부가리와 가쿠가리가 대표적인 두발형태로 나타났다.

##### 4.1.2.1 고부가리(五分刈り, ごぶがり / 짧은 스포츠머리)

단발령 이후 도입기에 나타난 두발형태로 일본남성의 두발형태인 고부가리를 들 수 있다. 고부가리는 최초로 일본남성의 영향을 받은 두발형태로 머리길이를 오부(五分) 길이 정도로 짧게 깎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부(分)은 당시의 길이 단위로 1치는 0,5mm 이므로 5부는 1.25mm로<sup>37)</sup> 현대적 의미로 쇼트 스포츠헤어에 해당한다고 본다. 바리칸을 사용하지 않고 가위로만 잘랐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두발형태라 할 수 있다.

닥터 에비슨이 가위로 나의 머리를 잘랐다. 그 때의 몇몇 외국 사람들이 동정어린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았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상투가 내 앞에 떨어 질 때에 나는 싸늘한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병원에 달려 있는 작은 방에서 이틀 밤을 보냈다...

이글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단발하였던 모습을 그의 자서전에 기록한 내용이다.<sup>38)</sup> 그 외 독립운동가와 개화 사상가들이 연이어 단발을 하였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항일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집단과 일본에 대한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유희(遊戱)를 즐기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후자를 독일어의 쓰레기 혹은 폐물을 뜻하는 단어 Lumpen에서 유래된 룸펜 지식인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반발로 룸펜 지식인들의 생활을 비판<sup>39)</sup>했으며 이는 당시 우리나라 남성들이 하였던 고부가리 머리를 한 사람들에게 까지 룸펜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낙동강 칠백 리 공굴 놓고  
하이카라 잡놈이 왕래한다”.<sup>40)</sup>  
“아리랑 통치마 옆구멍 뚫고

37) 네이버 일본어 사전참조

38) 김민정(2003), 앞의 논문, p.34

39) 황성모(1990) 「日帝下 知識人の 社會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179-250

40) 고정욱(1949)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p.190

하이카라 손목 들냥 날랑<sup>41)</sup>

위의 민요 속에서 일본사람과 일본사람의 흉내를 내고 다니는 하이칼라 스타일의 사람들에게 대해 적개심과 저항의 의미를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논문에서 단발령 이후에 나타난 두발형태를 설명할 때 하이칼라머리라고 설명되어진다. 김민정(2003) 「개화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과 재현에 관한 연구」에서는 “하이칼라머리는 신물물의 대표적인 산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던 조선의 신지식인들은 점차 자의적으로 상투를 자르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이상원(2002) 「상투와 단발령 그리고 하이카라머리」 “일제시대 조선남성의 새로운 두발형태를 중머리와 하이카라머리, 톱뿔 지식인과 하이카라머리”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이칼라의 어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 동아일보 사회면 3면에 게재 된 “잘못 인용된 어원”을 꼬집은 기사내용이다.

일본사람들이 양복이나 제대로 입을 것을 가르쳐 “하이카라”라고 했다. 옷을 잘 입어서 하이카라가 아닙니다. 이것도 실은 영국 사람들이 와이셔츠 위에 대는 카라를 높은 것을 하고 다니는데, 이를 가르켜 “하이카라” “하이카라”라고 했으니 큰소리도 못할 입장이지만.....

라는 기사에서 보듯 하이칼라는 특정한 두발형태를 지칭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국어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였던 일제강점기에는 ‘하이칼라, 모단걸’ 등 서구어계 외래어를 썼고, 일본과 관련시켜 새 물건에는 ‘왜(倭) (중약) 나라비서다(줄서다)’ 등이 쓰였다. 42) 에서도 하이칼라 두발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따른 유행어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민지(2005)의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어떤 남자가 데리구 사누」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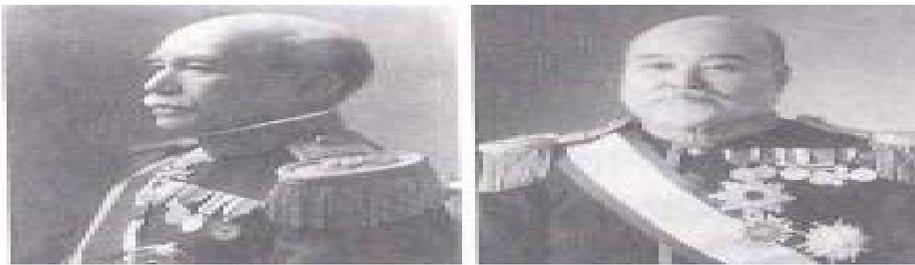
“방학이 되어 고향에 내려가면 주변 어른들에게 ‘저런 하이카라 여성을 어떤 남자가 데리구 사누’ 라는 흉을 들었다.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지자, 여학생들이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숙제를 많이 내고 시험을 많이 보게 하지는 웃지 못 할 공여지책도 등장했다.”

위 내용에서는 방학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왔으나 공부는 하지 않고 몇만 부리고 다니는 여학생을 흉보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도 하이칼라는 두발형태가 아니라 멋쟁이를 빗대어 사용

41) 매일신보(1930.10.23) 「농촌아리랑 별곡」

42) 이용백 감수(199)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p.200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이든(2007)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 조선에서의 리발료가 일정하여 가령 하이카라머리에 四十錢, 상고머리에 三十錢, 면도에 二十錢 이라 하면 누구나 다 均一하게 받고..”라는 자료도 있는데, 이는 가위로만 짧게 자르는 고부가 리머리를 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위의 자료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하이칼라를 단순히 일제강점기 시대에 유행했던 신문물의 상징을 총칭해서 사용된 용어라 생각하고, 두발형태의 종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림 6>은 당시 일본 정치인들의 두발형태인 고부가리로 보인다.



<그림 6> 당시 일본 정치인들의 두발형태  
출처: 상투를 자른 사무라이(이광훈 저) p.308

#### 4.1.2.2 가쿠가리(角刈り, がり刈り / 상고머리)

가쿠가리머리는 일명 상고머리로 양옆머리와 뒷머리를 클리퍼나 가위로 깎아 올려 윗머리는 5~10cm 정도의 길이로 고부가리보다 윗머리가 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쿠가리 역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두발형태라 할 수 있다.

상고머리를 깎으려면 기다리지 안코 짝거도 꼭 五十分이 걸린다. 만일 먼저 깎는이가 있어서 이십(二十)분쯤 기다리게 되면 한 시간 하고 十分 자칫하면 한 시간 반쯤은 리발소에서 보내야하게 된다. (중략) 우리 조선에서의 리발료가 일정하여 가령 하이카라머리에 四十錢, 상고머리에 三十錢, 면도에 二十錢 이라 하면 누구나 다 均一하게 받고...(하략)<sup>43)</sup>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상고머리는 까까머리에 비해 고난도의 테크닉을 요했으며, 이발 기구 또한 수동클리퍼인 쌍수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발형태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김이든(2007)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그림 7> 의 사진은 메이지천황과 일본 정치인의 두발형태로 가쿠가리머리를 한 모습이다. 가쿠가리머리는 일본에서도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두발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두발형태이다.



<그림 8> 메이지 천황과 일본 정치인의 두발형태  
출처: 상투를 자른 사무라이(이광훈 저) p.166

## 4.2 과도기

1910년부터 1920년대 우리나라는 신·구가 병행하는 과도기로서 단발령의 영향을 받아 땡기머리와 상투머리를 자르고 고부가리와 가쿠가리와 중머리 등의 짧은 머리로 단발을 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촌로들은 집에서 상투 없는 맨 머리를 보이지 않으려고 망건이나 정자관을 착용하였다. 땡기머리와 상투머리는 도입기에서 자세하게 언급했으므로 본 장에서는 고부가리와 가쿠가리머리의 형태적 변화와 까까머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4.2.1 고부가리, 가쿠가리와 까까머리

과도기의 대표적인 두발형태로 고부가리, 가쿠가리와 까까머리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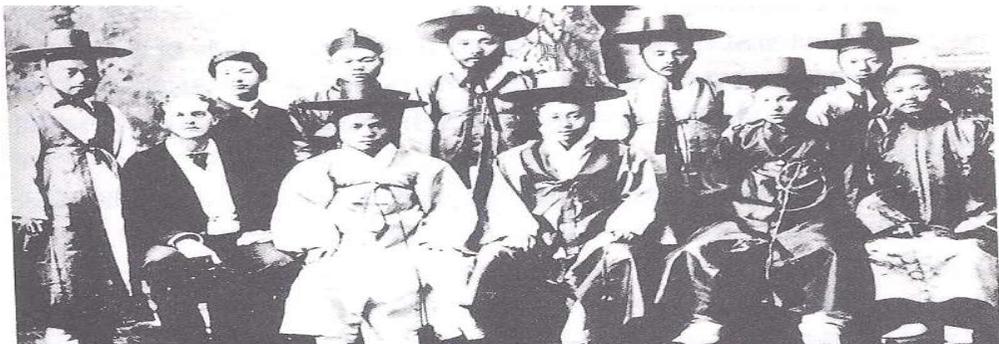
도입기의 고부가리머리는 두발전체적으로 쇼트 스포츠(Short Sports)형태에서 미듀움 스포츠(Medium Sports)형태로 머리카락이 조금 길어진 안정되고 세련된 형태로 변화되었다. 가쿠가리인 역시 윗머리가 길어지고, 가르미(Part)를 센터파트(Center Part), 사이드 파트(Side Part), 노 파트(No Part)로 본인의 얼굴 형태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과도기의 두발형태와 복식문화에서 상투의 유무는 신구를 기능할 수 있는 척도로, 짧은 머리에 도리우찌(とりうち)를 쓰면 개화파, 신학문을 닦는 사람들로 구분되었다. 짧은 머리에 두루마기, 서양식 모자를 쓴 모습이 이 시대 남성들의 가장 일반적인 외출복 차림으로 익숙하게 되었다.

1919년 1월 고종이 승하하여 국상을 당한 국민들이 백립과 유사한 이들 모자를 착용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8독립 선언과 3.1 민주 운동이 일어난 1919년부터 남성들 사이에서는 파나마모자, 맥고모자, 중절모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모자를 쓰는 것은 인텔리 계층으로 인식되어 너나없이 남성들은 외출 시에 모자를 쓰게 되었다. 당시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하이칼라로 멋을 내기 위해서는 가르마를 타거나 올백(all back)하여 포마드를 발라 매끈하게 빗는 머리를 하였다. 이 형태를 하기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갖춘 이용사가 가위로 양 옆과 뒤를 치켜 깎아 모자를 착용했을 때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형태로 주로 중장년층에서 꾸준히 유행하였다.

다음으로 과도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일명 중머리인 까까머리는 스님들이 행하던 두발형태로서 제발제수(剃髮際鬚)라 하며 삭발, 낙발(落髮), 축발(祝髮), 체두(剃頭)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주로 학생들은 까까머리에 서양식 모자인 교모를 썼다. 아이들과 학생에게 행해졌던 이 두발형태는 편리함 때문에 어른들도 점차 시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란 이후 일본에서는 한국 학생들에게 정신무장을 위한 방편으로 특히 남학생들에게 까까머리를 강요하였다. 이후 까까머리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남성들에 특별한 기술 없이 모두 밀었던 두발형태로 대중에게 인기를 얻었다. 1900년 이전의 남학생들은 상투로 빗고 망건에 갓을 쓰거나 땀은 머리에 땀기를 드러 늘인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단발령이 내린지 10년이 경과한 당시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통을 고집하고 신법에 저항하였다. 이에 학교 당국에서 삭발을 강요했을 때는 자퇴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림 9>는 과도기의 신·구가 병행하는 시기의 사진자료로 단발에 관을 쓴 모습과 가쿠가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9> 단발한 머리에 관을 쓴 모습  
출처: 고쳐 쓴 한국근대사(강만길 저) p.218

### 4.3 발전기

1921년 이후 발전기에는 전시체제 강화되고, 일제몰자 및 인력수탈 등의 문화말살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나라 남성 두발형태가 정착되었다. 발전기에는 한국 남성의 두발형태는 전통적인 두발형태는 거의 사라져 갔고, 일본남성의 두발형태인 고부가리, 가쿠가리와 까까머리와 더불어 서양식 두발형태인 장발머리에 웨이브 등의 새로운 두발형태가 등장하였다

#### 4.3.1 고부가리, 가쿠가리, 까까머리, 장발과 웨이브머리

발전기의 두발형태에는 단발령 이후 꾸준히 유행을 해온 고부가리와 가쿠가리는 대체로 안정된 두발형태로 정착하였다. 발전기에 가장 대중화 되었던 두발형태가 까까머리였다. 세계 2차 대전의 발발로 청년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갔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이때 남성들은 정신무장을 빌미로 특히 일제의 핍박이 극에 달했던 종전 무렵에는 고부가리나 가쿠가리 대신 까까머리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 무렵에는 사회지도부인사 이외에는 모두 까까머리를 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일본의 강요가 없었다고 해도 고부가리나 가쿠가리머리는 이발 비용이 비싸 일반인의 경우 이발소를 통해 머리를 깎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 까까머리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의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머리를 기르게 되어 까까머리는 점점 감소하게 되었고, 1982년 두발자유화 이전까지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대표적인 두발형태로 이어져왔다. 뿐만 아니라 까까머리는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정착하게 되었다.

발전기에 새롭게 등장한 장발과 웨이브머리는 주로 혁명가나 반일운동을 하는 청년층에서 반감표출의 의미로 머리를 목을 덮도록 기르게 되었고, 포마드를 발라 매끈하게 빗은 머리보다 짧은 웨이브머리를 선호하였다.<sup>44)</sup>

## 5. 결론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의 두발형태가 한국 남성 두발형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남성의 두발형태의 변화요인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단발령 이후 한국 남성의

44) 이영미(2004) 「한국 남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1

두발형태의 변화를 도입기, 과도기, 발전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남성의 두발형태의 변화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1) 1895년에 내려진 단발령선포이다. 단발령은 일본의 아육정책과 조선의 개화파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고 양력을 도입했으며, 의복의 변화, 신분타파와 함께 추진된 개혁조치 중에 하나이다. 이 개혁조치들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서양식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던 젊은 지식인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스스로 상투를 잘랐다.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로서 쇠국에서 개국으로 발을 딛는 근대화 과정에서 단발은 겪어야 했던 공동 운명이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무사를 상징하는 존마게를 자르고 양복을 입었으며, 중국에서도 청조를 배척하고 근대화하는 상징으로 청족의 상징인 변발을 잘랐다. 하지만 한국의 상투를 자른다는 데에는 존마게나 변발과는 달리 침략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조선에서의 상투를 자른다는 의미로 단발령은 민족문화와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역사의 또 다른 상처로 남게 된 것이다.

(2) 신분제도의 타파이다. 조선은 양반중심의 신분사회로 양반, 중인, 양인, 천인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두발형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금제를 두어 신분과 계급에 따른 차별을 두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신분제도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농업기술의 발전과 생산력의 증대, 광작의 증가, 부농 및 양인지주의 등장 등이 농민층을 분화시켜 신분제도의 붕괴를 촉진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은 조선을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혁시키려는 획기적 개혁운동으로 전통적 신분제와 풍습을 바꾸게 되는 혁명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정치적 변혁은 남성 두발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복식제도의 변화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복식제도는 갑신, 갑오, 을미년의 의제개혁과 대한제국의 의제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갑신, 갑오, 을미년의 의제개혁을 통해서는 복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졌고, 대한제국의 의제개혁을 통해서는 관복에 양복이 도입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의제개혁을 통해 복식이 간소화되고, 양복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복식문화가 탄생하였다. 개화기의 대표적인 복식과 두발형태는 일본사람들에게 대중화되었던 하이칼라 스타일이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에게게도 유행하였다.

2) 단발령 이후 시기별 남성 두발형태의 변화를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를 도입기, 과도기, 발전기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는.

(1) 도입기(1895~1900년대)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근대화 정책이 추진

되었고, 전통적인 두발형태인 땡은 머리, 상투머리에서 일본 남성의 두발형태인 고부야기, 가쿠가리 등의 짧은 두발형태로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서양문물의 유입과 함께 큰 변화를 겪었으며, 동시에 신분제 폐지에 따른 두발형태와 복식문화에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단발령은 보수파들의 저항이 거세었지만, 개화사상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지식인들의 증가와 일본의 교활한 문화말살정책 등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정당성을 잃게 되었다. 특히 서양식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던 이승만이나 신채호 등의 젊은 조선 지식인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상투를 잘랐다. 그러나 도입기에는 개화파인사나 관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땡머리와 상투머리를 하고 있었다.

(2) 과도기(1910~1920년대)는 일제강점기의 한국 남성들에게 상투가 잘려지면서 근대화의 두발형태인 고부가리와 가쿠가리, 까까머리 등이 전통적인 두발형태와 복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두발형태는 짧은 머리를 하면서 전통적인 갓을 쓰고, 한복과 구두를 신는 등의 다소 복합적인 패션이 선을 보였다. 이는 신·구가 병행되는 과도기로서 땡머리와 상투머리, 고부가리, 가쿠가리, 까까머리 등이 유행 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촌로들은 상투 없는 맨 머리를 보이지 않으려고 망건이나 정자관을 착용하였다. 초창기 고부가리와 가쿠가리는 주로 고급 관료들의 두발형태였고 점차로 지식인들과 도시의 젊은 남성들의 두발형태로 정착되었다. 당시 일부 조선 지식인들이 식민지 지식인들의 전형적인 소외현상 중에 하나인 룸펜 생활을 하면서 하이칼라스타일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순된 현상은 개항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렵 상투의 유무는 사상의 신구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일본의 전형적인 두발형태인 고부가리나 가쿠가리에 도리우찌를 쓰면 개화파, 신학문을 닦는 사람들로 구분되었다. 짧은 머리에 두루마기, 서양식 모자를 쓴 모습이 과도기 남성들의 가장 일반적인 외출복 차림으로 익숙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까까머리에 서양식 모자인 교모를 썼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학생에게 행해졌던 이 두발형태는 편리함 때문에 어른들도 점차 시행하게 되었다. 특별한 기술 없이 모두 밀었던 까까머리는 대중에게 인기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까까머리는 3.1운동과 무장투쟁 등의 민족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과 군인의 두발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로 볼 때 유교적 전통사상 속에서 두발형태의 의미는 각종 항일운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3) 발전기(1921~1940년대)에는 세계2차 대전의 발발로 전시체제 강화되어 청년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갔고, 일제물자 및 인력수탈과 문화말살 정책 등 일본의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일제의 핍박이 극에 달했던 종전 무렵에는 정신무장의 필미로 일본의 두발형태인 고부가리나 가쿠가리 대신 까까머리를 강요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전에는 전통적인 두발형

태는 거의 사라져 갔다. 광복 이후의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두발형태는 고부가리와 가쿠가리를 하였고, 남학생들의 까까머리는 1982년 두발자유화 이전까지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대표적인 두발형태로 이어져왔다. 뿐만 아니라 까까머리는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안이나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정착하게 되었다.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나라 남성 두발형태가 정착되고, 고부가리, 가쿠가리와 더불어 까까머리, 장발머리에 웨이브머리 등의 새로운 두발형태가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열강의 문화와 선교사들의 두발형태들이 유입되면서 두발형태의 용어 또한 조금씩 변화되어 스포츠머리, 상고머리, 모판머리, 롱구 스타일, 맨즈 스타일 등 의 용어로 불리지면서 형태 또한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유행한 두발형태인 가쿠가리인 상고머리는 현재까지도 청년층과 중·장년층 한국 남성들에게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 두발형태이다.

이상으로 일본남성의 두발형태가 단발령을 계기로 한국남성의 두발형태가 현대적 의미의 형태로 변화되고 정착되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우리나라 남성의 두발형태를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김수원(2000) 『이용기술』영인 출판사  
 심인섭(2002) 『광고로 보는 한국화장의 문화사』김영사  
 유송옥외(1996) 『복식문화』교문사  
 안중근(2009) 『범우사』  
 유영익(1990) 『갑오경장 연구』일조각  
 윤병희(1989) 『한성부민회에 관한 일고찰』 제17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발행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1998) 『종합이용이론』  
 김용운(1994) 『한국인과 일본인 1부』 한길사, p.94  
 김경연(2003) 「개화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과 재현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7-30  
 김민정(2003) 「개화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과 재현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3  
 김이든(2007)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김지연·최정명(2006) 「日本 전통 頭髮樣式의 사적고찰을 통한 明治時代의 특성분석」『한국인체예술 학회지』, p.161  
 배행숙(2007) 「남성 얼굴 형태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조사 연구」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11  
 송현주(1987) 「우리나라 男性修髮의 變遷에 관한 研究」『대한가정학회지』제25권 1호, pp.19-34

신은수(2005)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 두피모발 미용학회지』제1권 제1호, p.170  
신용하(2002) 「勉庵集」“茂成再疏”, 「구한말 지식인의 수구의식과 개화의식」『한국의 사회와 문화』제5집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이영미(2004) 「한국 남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이상현(2002) 「상투와 단발령 그리고 하이카라머리」『실천민속학연구』, p.1  
임윤정(2011) 「19세기말 조선의 상투와 단발령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고찰」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25-26  
전옥주(2002) 「HAIR로 인한 image 創出 研究」명지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37  
한국문화컨텐츠&중앙대학교 인문컨텐츠 연구센터(2005)  
<http://people.empas.com>  
<http://blog.naver.com/cowwww>. naver.com  
<http://blog.naver.com/pandova>  
<http://blog.daum.net/visan/71>

---

논문투고일 : 2012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10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25일

---

### 근대 일본이 한국 남성의 頭髮形態에 끼친 영향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이 한국남성의 두발형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발형태에 끼친 요인을 분석하였고, 요인에 따른 두발형태의 변화를 도입기, 과도기, 발전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두발형태에 미친 요인에는 단발령과 신분제도의 변화, 복식제도의 변화로 나타났다. 먼저, 도입기의 두발형태는 일반인들은 땡기머리와 상투머리하고 있었고 신지식인들과 관료들은 짧은 두발형태인 고부가리나 가리야기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였다. 이어 과도기에는 전통적인 두발 형태인 땡기머리는 서서히 사라지면서 상투머리는 단발한 머리에 탕건이나 관을 쓰고 한복을 입는 등의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났다.

발전기인 1930년 부 터는 전통적 두발형태는 거의 사라지고 고부가리, 가쿠가리, 까까머리 등과 함께 장발머리에 웨이브 머리 등의 새로운 두발형태가 유행하였다.

이로 볼 때 한국남성의 두발형태 변화에는 단발령을 계기로 일본 남성의 두발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남성의 두발형태는 도입기인 19세기 말부터 과도기를 거쳐 1940년대까지의 발전기를 거쳐 오늘날 까지 변화를 거듭하여 발전하였다. 이로 볼 때 단발령이 현대적인 의미의 남성 두발형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Since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of Korea by Japan, the impact of men's hair in the form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Japan, Korea in the form of male hair. Factor analysis on the form of the hair, and examined the factors, according to the hair in the form of changes in the introduction, transition, and development

Factors on the form of the hair, were the Topknot Cutting Edict, caste system changes and Costume changes. when Introduction as the new and old time is clearly separated, ordinary people had pigtail hair and topknot hair, intellectual people and bureaucrat are inevitably accepted short cut style sport hair or Boy's bob. after the transition a traditional hair shape pigtail hair slowly disappeared. and then topknot hair is changed to putting Tanggun or Gwan on bobbed hair and wearing a Hanbok.

development ,Starting in 1930, a traditional head shape, almost disappeared. and sport hair or Boy's bob. shaven hair, long-hair and hair waves are popular. in view of these facts, Changes in the form of Korean men's hair are influenced by hair form of the japanese man has been a lot can be seen.

form of korean men's hair had been developed by continues changing until today. in view of these factsTopknot Cutting Edict seems to have influence on change of male's hair form of The modern sense.